

“일상을 예술로 잇는 소통창구 자리매김”

후丑年 새해설계

성현출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

개관 30주년 ‘변화와 혁신’...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 육성 박차 코로나 극복 힐링콘서트 활성화·공모작 ‘양림’ 정기공연 계획

“문화예술 제공자에서 시민의 일상을 예술로 잇는 예술의 소통창구로써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자리매김 하도록 여러 과제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성현출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지난 7일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예술계가 많이 힘들었던 한 해다. 다수의 공연이 축소, 연기됐음에 불구하고 문화회관은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거리두기 공연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209회 공연을 열어 7만5천여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 극복 예술프로젝트 유튜브 ‘안방예술극장’을 진행해 9만3천346회 조회수를 기록했고, 5·18 40주년을 기념한 오페라단의 ‘박하사탕’, 교향악단의 ‘광주여, 영원히’, 발레단의 ‘오월바람’, 합창단의 ‘창작 오라토리오 빛고을’, ‘라보렐’,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단체들 간 협연도 성공적으로 거둔 한 해를 보냈다.

신축년 2021년 새해는 광주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올해 회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으로 꼽았다.

“올해 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으로 30년 된 노후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연시설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외적인 낡은 시설을 바꾸는 것만을 뜻하

지 않고, 내적으로도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통해 예술단이 회관의 브랜드가 되도록 변화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 297억원(국비 20, 시비 27)을 들여 2022년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대극장 및 주차장 착공 예정이며, 소극장 공사를 끝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 육성’을 목표로 국악상설공연 성장,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통한 대표 브랜드 공연 육성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립교향악단이 27일 소극장 ‘실내악시리즈’ 무관중 공연을 시작으로 ‘GS011시 클래식’, 시립발레단의 ‘살롱콘서트’, 하반기 공연 ‘정원’, 3월 국악관현악단의 장사익이 출연하는 신춘음악회, 시립합창단의 세기별, 시대별 합창음악, 12월에는 정기공연 푸치니 ‘투란도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공모로 당선된 ‘양림’ 정기공연을 준비중이며, 코로나 극복 힐링 콘서트 야외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현장공감 공연 외 정기·수시 공연 등 총 245회 공연을 준비중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산하 8개 시립예술단의 화합



과 소통을 위해 분기별 ‘회관 사랑의 날’ 지정, 예술단체 간 공동기획 추진체계 마련, 대규모 공연에 맞는 전략적 작품 개발 등 프로젝트형 공연기획을 통해 화합과 소통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립예술단원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인권 존중 조직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조직문화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레퍼토리 개발 TF팀 공동기획 프로젝트 회의운영, 프로젝트형 브랜드 공연 계획 및 작품 개발, 중장기 공연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다이 기자



노의웅 작 '구름천사'

하늘은 나의 도화지

노의웅의 캔버스=산책



나의 어린시절은 무척이나 어려웠다. 6·25 직후 먹을 게 없어 들리며 야산을 뒤져가며 풀뿌리를 캐먹다가 풀밭에 눕곤 했다. 그 때 하늘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 누나도 순이도 철수도 우리집 강아지도 있었다. 삼촌 얼굴이 구름 속에서 알 수없는 동물들과 나를 반기곤 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송이송이가 구름에 천사와 고운 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마음 속 깊이 담아 두었던 귀한 것들이 하늘에 펼쳐졌다.

내가 처음 그린 그림은 풀밭에 누워 구름을 보고 거기에서 엮어낸 만물의 형상이다. 그 때 그렇게 그렸던 그 구름이 여기 양과동 노의웅미술관에서도 아주 아주 가끔씩 만나곤 한다. 그 때마다 얼마나 크게 마음이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커다란 행복감에 젖는다. 그 시절에 만난 하늘은 그리운 이들의 얼굴과 형상을 나의 도화지에 가져다 준, 사랑이 있는 그림 학교였다. 그 시절이 정말 그림다.

〈노의웅 미술관장, 전 호남대 교수〉

초의선사 자취 어린 고문서들, 국립광주박물관으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참회법어첩·직지원진 등 169건 364점 기증

조선 후기 차문화를 부흥시켰던 초의선사와 당대 사대부가 가졌던 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기증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 관련 고문서 등 169건 364점을 박동춘(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에 기증받았다.

기증유물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초의선사와 교류했던 인물들이 초의에게 보낸 편지와 시축이다. 초의선사는 수행승이자 차문화를 부흥시켜 ‘초의차’를 완성한 인물로 정평나있다.

그는 흥현주(1793~1865), 신위(1769~1845), 박영보(1808~1872), 정학연(1783~1859), 권돈인(1783~1859), 황상(1788~1863), 변지화(?~?), 허련(1808~1893) 등 이름난 학자와 문인·예술가·스님과 교류했다.

기증유물을 통해 초의선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당대 지식인들의 개인사와 각종 사건, 차에 대한 인식 등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초의자를 예찬한 박영보의 ‘남다병서첩(南茶并序帖)’과 박영보의 스승인 신위의 ‘남다시병서(南茶詩并序)’는 당시 사대부가 가졌던 차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또한 초의선사의 육필 저술과 등초한 문헌 등 매우 귀중한 문화재가 기증됐다. 초의선사 친필의 ‘참회법어첩(懺悔法語帖)’, ‘직지원진(直指原眞)’ 등이 주목되는데, ‘직지원진’은 풍수지리서로 초의선사가 풍수

지리에 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밖에 초의선사의 다공을 보여주는 다구 등이 기증됐다.

박동춘 기증품은 초의선사 이래 5대째 이어지는 다공의 계보를 보여준다.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과 같은 다서(茶書)를 편찬해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고, 정통 제다법으로 ‘초의차’를 완성했다.

아울러 김정희(1786~1856), 정약용(1762~1836)과 그의 아들 정학연(1783~1859), 허련(1808~1893) 등 당대 이름난 사대부·스님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차문화 확산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박동춘 기증자는 “차를 비롯한 조선 후기 문화의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박물관을 찾는 분들께서 우리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번 기증받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차 문화의 연원과 계보를 연구하고 동아시아 차문화 연구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 발간 및 전시로 그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기증은 도자문화거점박물관을 지향하는 국립광주박물관이 우리의 차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우리 문화의 원형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이 기자

전남문화재단 민간대표이사 3차 공모

28일까지 접수...임기 2년

전남문화재단이 민간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3차 공모에 들어간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선임 절차는 별도로 구성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해 최종 임명한다.

자격요건은 ▲문화예술 기관의 장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또는 재단사업과 관련한 단체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 분야 대학, 연구기관에

서 부교수, 연구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경력자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직무수행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며, 연령·학력 제한은 없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지역 예술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가치 확산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전남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접수는 전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김다이 기자

왜? 하이롬 전기온풍기인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하이롬에서 제작한 농업용 전기온풍기로,

낮은 연료비와 높은 열효율을 통해 하우스 내부를 작물 성장에

최적의 환경으로 맞춰 다수확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닐하우스 필수품, 농업용 전기온풍기입니다.

난방비는 내리고, 온도는 내 맘대로 올리고!

온도는 High, 수명은 Long / 하이~롬 전기온풍기

사용장소

비닐하우스

딸기, 토마토, 메론, 블루베리, 포도, 가지, 고추, 피망, 한라봉, 백합과, 구아바, 호박, 부추, 갯잎, 버섯, 화훼

축사

돼지, 염소, 곤충(귀뚜라미, 굴뚝이, 메뚜기 등), 양계장, 오리농장

건조장

꽃감, 해조류(청각, 툇, 미역 등), 고추, 건설현장

작물별 사용 표준(200평 하우스 3중 보온 기준)

딸기, 갯잎

6~8℃ 유지
9KW 2대

토마토, 호박

12~14℃ 유지
9KW 3대

오이, 가지

17~20℃ 유지
9KW 4대~5대

고추

18~20℃ 유지
12KW 4대

애들망고, 멜론

19~22℃ 유지
12~15KW 5대

※ 9KW 1대가 3~4℃ 온도 상승, 위 기준은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직원과 상담하여 설치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십니까?

하이롬 전기온풍기

www.hirom.co.kr



저렴한 유지비용

고효율 온풍기

강력한 송풍기



(주)하이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90

T 1566-2042 F 062-511-8713 H 010-8612-8700

주식회사하이롬은 스마트팜 전문업체입니다. 정부 보조금 사업, 농협우자 가능

하이롬은 비닐하우스 농기계 전문회사입니다

검색창에

하이롬 전기온풍기

를 검색하세요!